

# 세계인 가슴에 던진 별 '류·현·진'



한국 선수 ML 올스타전 첫 선발... 1이닝 무실점 '위기관리' 돋보여  
박찬호·김병현 실점의 기억도 지워... "자주 해봤으면 좋겠다" 소감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 한국인 최초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선발 등판에서 1이닝 무실점 역투로 새 이정표를 세웠다.  
류현진은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열린 제90회 MLB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 올스타의 선발 투수로 1회 말 마운드에 올랐다.  
역대 빅리그에서 활동한 한국인 투수로는 최초로 야자 아시안 투수로는 1995년 노모 히데오(당시 다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별들의 무대’ 선발 투수로 마운드를 밟았다.  
박찬호(2001년), 김병현(2002년), 추신수(2018년)에 이어 한국인 빅리그 4번째로 올스타전 초대장을 쥔 류현진은 전반기 빅리그 전체 투수 중 평균자책점 1위(1.73)를 달린 대투수답게 위기관리 능력을 뽐내며 무실점 투구로 할당된 1이닝을 마쳤다.

박찬호는 2001년 올스타전에서 칼 립켄 주니어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1이닝 1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김병현은 2002년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의 7번째 구원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0.1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2점을 줘 불운세이브를 남겼다.  
두 선배와 달리 류현진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임무를 끝냈다.  
회색 바탕 상의에 올스타 패치가 부착된 다저스 원정 유니폼을 입고 등판한 류현진은 처음으로 격돌한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톨타자 조지 스프링어(휴스턴 애스트로스)에게 2구째에 중전 안타를 맞았다.  
류현진은 2번 타자 DJ 르메이유(뉴욕 양키스)에게 ‘전매특허’인 체인지업을 던져 투수 앞 땅볼로 잡히게 하고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채웠다.  
1사 주자 2루에서 만난 상대는 북미스포츠에서 최초로 4억달러 시대를 연 슈퍼스타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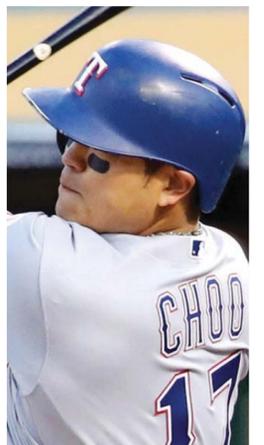
정규리그에서 10타수 무안타로 묵고 삼진 4개를 잡아낸 트라웃의 전적답게 류현진은 자신 있게 공을 던졌고, 2수루 땅볼로 처리했다.  
류현진은 2사 3루에서 카를로스 산타나(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유격수 땅볼로 엮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득점권 피안타율 0.110에 그칠 정도로 잔물 투구를 보인 류현진의 위기관리 능력이 올스타전에서도 빛났다. 공 12개를 던져 7개를 스트라이크로 쫓았다.  
류현진은 등판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세 타자로 끝내고 싶었지만, (스프링어에게) 빔맞은 것이 안타가 됐다. 그래도 기분 좋게 내려왔다. 재밌게 잘 던졌다”며 “(올스타전을) 처음 해봤는데, 자주 해봤으면 좋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는 4-3으로 이겨 2013년 이래 7년 연속 내셔널리그 올스타를 높였다.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로스터 32명은 승리 상금 80만달러(약 9억4500만원)를 나눠 갖는다.  
올스타전 ‘별 중의 별’인 최우수선수(MVP)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우완 투수 셰인 비버가 차지했다.



박찬호 (2001년 7월 11일 3회)



김병현 (2002년 7월 10일 7회)



추신수 (2018년 7월 9일)

비버는 1-0으로 앞선 5회 아메리칸리그 올스타의 5번째 투수로 등판해 윌슨 콘트라라스(시카고 컵스), 마르테,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애들랜타 브레이브스)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비버는 선발 투수로 전반기에 8승 3패, 평균자책점 3.45를 올렸다.

비버는 선발 투수로 전반기에 8승 3패, 평균자책점 3.45를 올렸다. /연합뉴스

## 지쳐버린 불펜 ‘운영의 묘’가 필요해



문경찬



KIA, 올 시즌 초 영건들 호투에 마운드 전진 배치  
문경찬·하준영·전상현 등 이미 개인 최다이닝 투구  
잡은 등판에 피로도 ↑... 당장의 성적보다 미래 봐야

견고하던 KIA 타이거즈 불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초보 불펜진에 예견된 위기가 찾아오면서 벤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KIA의 올 시즌은 ‘젊은 마운드’로 표현할 수 있다. 13년 차 양현종을 최고참으로 해 선발진과 불펜진이 대폭 바뀌었다.  
젊음과 패기는 KIA 불펜의 큰 힘이었다. 하지만 시즌이 흘러가면서 ‘젊은 불펜’의 장점이 극복해야 할 약점이 되고 있다.  
‘철벽 마무리’로 활약했던 문경찬은 최근 두 경기 연속 불운 세이브를 남겼다.  
지난 7일 LG와의 홈경기에서 9-7로 앞선 8회말 2사 만루에서 조기 출격한 문경찬은 정주현에게 싸늘이 2루타를 허용해 시즌 첫 불운세이브를 기록했다.  
9일 대구원정에서는 2-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이학주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다시 또 고개를 숙였다. 젊은 스트라이크존이 아쉽기는 했지만 첫 타자부터 불넷을 내주는 등 좋았을 때와는 다른 제구와 구위였다.

김운동의 부상으로 뒷문에 배치된 문경찬은 4월 27일 첫 세이브를 시작으로 20경기를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의 ‘0’의 행진에는 동료들의 힘도 있었다. 하준영, 전상현 등이 앞에서 착실하게 역할을 한 뒤 문경찬에게 마지막 이닝을 넘겨줬다. 하지만 최근 불펜진의 기복과 선발진의 조기 강판 등의 여파로 필승조, 추격조, 패전조의 경계가 애매해졌다.  
매끄럽게 이닝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5일과 7일 문경찬이 연달아 8회 2사에서 출격했다. 한 박자 빠르게 등판해 베이스가득 주자를 마주하게 되면서 문경찬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KIA 젊은 불펜진의 대부분은 처음 풀타임을 보내는 이들이다. 패기는 넘치지만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는 부족하다. 1군 무대의 무게감을 피로도도 높인다.  
올 시즌 선발진을 제외하고 KIA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진 선수는 문경찬이다. 9일 경기까지 33경기 34.1이닝을 소화했다.  
고영창은 가장 많은 39경기에 나와 34이닝을 책

임했다. 하준영은 37경기 33.1이닝, 전상현은 29경기 30.1이닝을 기록했다. 가장 늦게 합류한 박준혁은 22경기에 나와 24.2이닝을 던졌다. 고영창에게는 1군 데뷔 시즌이고 하준영과 전상현도 이미 최다이닝 기록을 넘겼다.  
불펜 위기에 봉착한 KIA는 ‘미래’라는 중요한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위권에서 전전하고 있는 KIA는 가을이 아닌 내년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심에는 젊은 선수들이 있다. 부상 없이 경력을 쌓아가는 게 올 시즌 그들의 숙제다.  
KIA는 시즌 초반 김운동을 부상으로 잃었다. 김운동은 지난 2년 80.1이닝(65경기)과 82.2이닝(64경기)을 던졌다. 2017년 80.1이닝은 선발 4명에 이어 팀 내 최다이닝. 2018년에도 선발로 뛰었던 한승혁(88이닝), 임창용(86.1이닝)의 이닝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강행군을 이어온 김운동은 결국 스프링 캠프에서 어깨 통증으로 페이스를 조절해야 했다. 그리고 시즌 11번째 등판에서 부상을 입어 시즌을 접어야 했다.  
KIA는 그동안 투수 유망주 영입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부상 관리 실패로 좋은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아픈 손가락은 늘어만 갔다.  
의욕이 넘치는 첫 풀타임 투수진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치밀하게 관리하는 게 KIA 코칭스태프와 구단의 역할이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여봉훈·전남 박준혁 K리그2 18R 베스트 11



여봉훈

박준혁

2년 만에 골 맛을 본 광주FC 여봉훈이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K리그2 18라운드 5경기 평가회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앞선 안산그리너스와의 홈경기서 골을 넣으며 팀의 1-0 승리를 이끈 여봉훈이 미드필더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여봉훈은 지난 2017년 4월 30일 ‘스타군단’ 전북현대를 상대로 데뷔골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득점에 성공했다. 광주는 여봉훈의 골로 창단 첫 5연승에 성공했고, 18경기 연속 무패 행진으로 K리그 2 단일시즌 최다 무패 기록과 타이틀 이뤘다.  
전남드래곤즈의 골키퍼 박준혁도 17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베스트 11이 됐다.  
박준혁은 두 명의 동료가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서도 아산무궁화의 공세(슈팅 20개·유효슈팅 11개)를 막으며 팀의 1-1 무승부에 기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